

# 지주사 중심 내부통제 개편... 부산·경남 '전산통합' 과제

## BNK금융, 체질개선 속도

빈대인 회장, 경영비용 효율화 '지역 동반성장' 핵심전략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4억달러 규모 외화대출 유치 등 해외 금융·투자사와 외연확장

BNK금융이 의사결정 구조를 지주사로 집중하고 경영비용을 효율화하는 '체질개선'에 속도를 낸다. 지역 기업에 투자해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업무체계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또 해외 투자유치를 통한 외연 확대도 지속한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경영 목표인 '초일류 글로벌 금융그룹'을 목표로 한 전략이다.

◆ **BNK금융, 효율화 목표 '체질개선'**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최근 '그룹 내부통제 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그룹 내부통제 체계를 지주사 중심으로 재편했다. BNK금융은 지주사 내에 그룹시너지부, 내부통제부, 해양도시전략팀 등 계열사를 아우르는 부서를 신설해 운영 중인데, 이번 개편도 지주사의 '지휘' 역할을 공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효율화'를 목표로 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과 부산 BNK부산은행 본점. BNK금융지주는 BNK부산은행 본점에 위치해 있다. /BNK금융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사 중심의 의사결정과 전략 설계를 통해 은행 계열사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으로 나눠 운영되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두 은행의 브랜드를 모두 존속해 얻는 지역적 시너지와 브랜드 가치는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BNK금융의 남은 최대 과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전산통합'이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전산을 별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 평균 1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양행의 전산 통합을 가로막았던 '방분리 규제'가 올해 들어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만큼, BNK금융의 전산통합도 이른 시일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지역중심·디지털로 성장 동력 확보**

인구 및 산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방소멸로 지방금융의 성장성에도 제동이 걸린 가운데, BNK금융은 '지역 동반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적극적인 금융공급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BNK금융의 지역 동반성장 전략은 정부의 정책 목표와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다. BNK금융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이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지역 생산적 금융프로젝트'를 지난해 말 출범해 투자를 본격화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와외의 포괄적 업무 협약을 통해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정책 목표에서도 한 축을 맡았다.

업무체계 내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BNK금융은 지난 4월 지주사의 '그룹AI-미래가치부'를 '그룹AI전략부'로 확대 재편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 설계에 나섰다.

디지털 전환의 성과는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다. BNK금융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의 금융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허용에 발맞춰 M365와 코퍼파일럿 등을 업무체계에 도입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은행 계열사에서는 자체적인 인어모델을 구축해 고객 상담 등에 활용 중이다. 오는 3분기에는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을 출범해 그룹 단위의 프로젝트 본격화할 예정이다.

◆ **국경 넘은 '외연확대'**

BNK금융은 해외 금융사 및 투자사와의 외연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자금 유치를 통해 빠르게 늘어나는 외화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가치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BNK부산은행은 최근 4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디케이트론(다수 금융기관이 분산 출자하는 대출)을 유치했다. 해당 신디케이트

론에는 5개국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BNK부산은행은 새롭게 조달한 달러 자금을 외화 조달-운용 비용 절감, 지역기업의 외화 수요 대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외연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BNK금융은 지난 17일 BoA(Bank of America)와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BNK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80%에 달하는 다른 금융지주와 비교해 외국인 지분율이 40% 수준으로 낮은 편인 만큼,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주가 상승 여력이 큰 편이다.

빈대인 회장은 앞서 BNK금융그룹의 경영 목표로 '초일류 글로벌 금융그룹'을 제시한 바 있다. 동남권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의 최우선 금융기관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영업과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및 성장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빈대인 회장은 올 신년사에서 "BNK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공방정식'을 통해 다가오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장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형 금융을 통해 지역과 산업, 일상의 성장을 연결하는 BNK만의 금융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내달 수도권 9000세대 입주... 전월비 52% ↑

인천 검단·경기 서남부권 중심 입주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1만4106세대

다음달 수도권 입주물량이 9000세대에 달하면서 공급기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전반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검단신도시와 경기 일부 지역에 물량이 집중됐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106세대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9082세대, 지방이 5024세대다.

수도권은 9082세대로 인천 검단과 경기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예정되면서 전월 대비 52.4%나 늘었다.

인천에서는 ▲e편한세상검단월곡언더(1458세대) ▲e편한세상제물포역파크메

종(736세대),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732세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검단신도시에서는 총 2190세대가 동시에 입주한다.

반면 서울에서는 단 2개 단지, 450세대만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초구 오티에르반포(251세대)와 서대문구 경희공유보라(199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물량 증가는 검단신도시와 경기 일부 지역의 대단지 입주 영향이 크다"며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매매 및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 규모에 따라 시장 흐름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는 인천시(1822세대), 평택시(1554세대), 시흥시(1026세대) 등에서 대단지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지방 입주물량은 5024세대로 전월 대비 33.4% 감소한다. ▲대전(1754세대) ▲광주(1008세대) ▲울산(848세대) ▲충북(715세대) 등에서 공급이 예정됐다. 대전 유성구 도안우미린트라세이드가 1754세대로 이달 지방 입주 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8만 6352세대로 집계됐다. 상반기 대비 7.0% 감소한 규모다. 수도권은 4만4613세대로 상반기보다 늘지만 지방은 4만1739세대로 그친다.

다만 서울은 상반기 6151세대에서 하반기 1만1490세대로 입주물량이 늘어난다. 디에이치방배, 힐스테이트메디칼레 등 정비사업을 통해 대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보이지 않는 곳서 위험 찾아 사고 예방"

김기환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취임

김기환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22일 취임식에서 "협회를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미래를 지키는 종합재난위험관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경영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 내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제시했다.

그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하루와 재난 없이 가족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하루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찾아

내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협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따른 대형 재난 증가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위험의 등장,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협회의 경영 방향으로 ▲함께 성장하는 협회 ▲함께 소통하는 협회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를 제시했다.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위험관리를 선도하겠다고

는 구상이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오늘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내일의 안전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KB국민은행에 입행한 뒤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상무와 리스크관리전무,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총괄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이역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성수동에서 출근길 청년에게 커피를 나누주고 있다. /금융위

# 이역원 금융위원장, 청년미래적금 적극 홍보

성수동서 청년들에 무료커피 배부

이역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첫날을 맞아 출근길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홍보에 나섰다.

이역원 위원장은 22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성수동을 찾아 청년들에게 무료 커피를 배부했다. 커피와 함께 제공되는 컵홀더에는 청년미래적금 공식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인쇄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신청절차, 지원내용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과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적금형 상품이다. 월 50만원의 납입액에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인 8%를 적용하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하는 '우대형'을 기준으로 최고 연 19.4%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7월 3일까지 2주간 국내 1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기금·부산·M·경남·광주·전북·키카오)

과 우체국 앱을 통해 가입을 접수한다. 첫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접수하며, 둘째 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접수한다. 가입신청은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이역원 위원장은 "오늘부터 판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자산형성의 동반자이자 희망의 사다리라 될 정책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의 자산형성은 단순히 개인의 저축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다"라며 "정부도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시작으로 자산형성 사다리를 더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미래적금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대부분의 절차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입 신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만큼, 청년들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